

삼성토탈, 중국에 PE·PP 기술 소개

ChinaPlas 참가 신기술 공개 ... PVC·PS 대체하는 친환경 PP 선보여

삼성토탈이 중국의 플라스틱 전시회 참가해 주력인 PE(Polyethylene)·PP(Polypropylene)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토탈은 4월 19-22일 중국 상하이(Shanghai)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산업 전시회 2010 China Plas에 참가한다.

삼성토탈은 전시회장에 240m²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모니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비전과 오픈형 자동차 모형 등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해 PE, PP 등 주력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생활·건축, 자동차, 전기·전자 등 소재별로 전시영역을 나누어 식품용기, 소형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IT 보호용 및 태양전지 필름 등 생활 소재부터 미래산업 소재까지 다양한 실물 제품을 전시한다.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PVC(Polyvinyl Chloride), PS(Polystyrene) 등을 대체할 친환경 PP 소재를 이용한 휴대폰 케이스, 생활용기, 전자제품 외장재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들도 선보인다.

삼성토탈은 부스 운영과 별도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140여개 고객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세미나를 열어 신제품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석렬 사장은 “삼성토탈은 2009년 4월 개설한 상하이 영업법인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9월 준공한 Guangdong 소재 복합 PP 공장을 통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하는 등 중국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24회째를 맞은 ChinaPlas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로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기업을 포함해 ExxonMobl, Sabic, DuPont, Lanxess 등 35개국 1900여사가 참가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9>